

로버트 A. 피터슨 박사(Dr. Robert A. Peterson), 누가- 사도행전의 신학, 세션 16, 피터슨, 사도행전 속의 교회, 3부, 바울의 사역의 예, 사도행전 20:18-32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3부, 바울의 사역의 예, 사도행전 20:18-32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신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내가 쓴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일곱 번째, 교회 안의 은혜와 연합, 대예루살렘 공의회 구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기도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당신 교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 15장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더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기로 작정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자세히 설명하여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신자들이 일어나 자기들에게 질서 있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옛날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내 입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나라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메시 못하던 멩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집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시므온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방문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기록된 바와 일치합니다. 여기서 그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하고 회복시켜서 남은 인류가 여호와를 찾게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은 예로부터 이 일을 알리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내 의견이다.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음이니라. 초기 신약 교회에는 생명과 열심과 기쁨이 가득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도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방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초대 교회의 주요 신학적 논쟁에 관심을 돌립니다. 유대로부터 온 어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너희가 모세가 정한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주장하니라(행 15:1).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반대하여 이 문제로 토론하니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세우니라.

사도행전 15:2.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을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들에게 전하며 교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3절. Barrett은 논쟁 자체인 15:6-29를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묘사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CK Barrett, 사도행전 15-28, 국제 비평 주석, 696쪽.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논쟁 자체(행 15:6-29)가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묘사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을 포함하여 주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했습니다(4절). 그러나 일부 유대인 신자 바리새인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셨다(5절). 이 문제는 교회의 장래와 그 사명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온 교회가 사도와 장로들로 더불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다(6절). 상당한 논쟁이 이어졌고,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본체에 제출했습니다. 베드로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순절 날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행 15장 7절, 8절).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나 우리나라 저희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9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비난했습니다(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데이비드 피터슨(David Peterson)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보는 베드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인용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멍에를 동료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결코 이행하지 못한 의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동료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피터슨, 사도행전 4~7장. 그런 다음 누가는 강력한 진리로 베드로의 연설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기는커녕, 11절에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Peter는 필드를 반전시킵니다.

이전에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의 경험이 이전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실제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전에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의 다른 특징들을 준수할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모세의 언약이 12장에 주어져 12장에 소개되고 15장에서 인준되고 17장에서 제사를 드리며 할례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할례의 언약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경제. 하나님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이든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약의 성도이든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모세의 언약을 더하시어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4절.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으므로, 모세 언약의 의식법과 희생법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장, 12장을 인용하여 베드로의 증언에 자신의 중요한 증언을 더하며, 그의 목소리는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간증 이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경험이 증명한 것은 온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의해 공식적인 원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행 15장 9절.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나라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합니다.

마셜은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하워드 마셜(Howard Marshall)의 사도행전 247장, 그의 사도행전 주석을 인용합니다. 누가는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율법을 받아들일 필요성은 단호히 거부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초대 교회의 미래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모든 시대에도 여전히 기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 인종적, 사회적 요구 사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믿음의 요구 사항 외에 구원과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전해집니다.

Marshall, Acts, page 247. 이것은 우리에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가르치는 사도행전의 여덟 번째 삽화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교회 사역의 예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신학생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쳤고, 목회서신과 함께 우리는 항상 이 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는 바울의 사역 철학, 목표, 목적, 자신의 모범이 담겨 있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본문을 우리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거쳐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7절은 우리가 주의 만찬 구절로 해석한 떡을 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정이 지나서 설교하는 장황한 설교를 했다는 것을 언급했고, 청년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죽어서 들려 올려졌는데 바울이 그를 일으키고 다시 항해한 뒤에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0:17.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

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며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긴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라 내가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나 각 집에서나 꺼리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으니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나 자신에게 어떤 가치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왕국을 선포한 사람 중에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신과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양 떼를 보살피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야끼지 아니할 줄을 나는 아노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내가 삼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서 유업을 주실 수 있느니라.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줄을 너희도 알느니라 범사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모두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안고 입을 맞추니 더욱 근심하니 이는 그가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와 함께 배에 갔습니다.

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연설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한 유일한 바울의 연설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스(행전 412페이지)와 비교하십시오. 이것은 누가행전에서 목회 사역을 주제로 한 가장 풍부한 표현입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울은 육지로 여행하여 앓소에서 그의 일행을 만나 거기서 그를 배에 탔습니다(행 20:13, 14). 몇 정거장 후에 그들은 에베소를 우회했는데,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급히 갔기 때문입니다. 오순절까지.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은 밀레도에 이르렀고, 바울은 그곳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부르며,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자기에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관해 그들을 격려하고 권고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에베소의 신자들과 어떻게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지 회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품과 시련을 인내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18, 19절. 그는 그들을 덕을 세우는 법을 가르치셨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집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20절.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너희를 가르치느니라. esv.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 즉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회심을 선포했습니다.

21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서는 투옥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22, 23절. 그는 자신의 관심이 자기 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4절. 바울은 다시는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청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결백함을 말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25-27절. 그런 다음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과 교회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와 목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엄숙함을 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로로 택하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편으로 높아지심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여러 번 언급하며 때로는 예수의 죽음을 죄 용서와 연결하지만 속죄의 교리는 단 한 번만 가르칩니다. 자신의 피, 얻은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죄의 종으로 여겨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값이라는 생각을 꺼립니다. Barrett, 사도행전 15-29, 페이지 977. 성경은 여기와 다른 곳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참으로 대속물입니다.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자유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45, 그 유명한 대속물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18 19, 요한계시록 5:9, 10. 마가복음 10:45, 베드로전서 1:18, 19, 요한계시록 5:9, 10. 실제로 피터슨은 사도행전 20장 옆에 있는 다른 부분을 언급하면서 데이비드 피터슨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28장에서는 누가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요 나의 잔혹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터슨은 누가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친 사도행전 20~28장 외에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을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비록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지불된 대가로

제시되었다는 암시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피터슨은 핵심 인용문에 정면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매우 페리, 소년, 오 마이라는 동사는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표현과 결합하여 확실히 피를 통해 획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은 단순히 용서를 선포하는 기초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그들을 사시고, 죄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사셔서, 자유롭게 그분께 속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의 서신의 많은 구절과 어울리는 긴급한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0: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줄을 나는 아노라 사도행전 20:29. 누가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단의 끔찍한 결과를 경고하기 위해 거짓 교사들을 야만적인 이리라고 부르면서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다음 말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30.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장로들 중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 거짓 선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말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더 일반적인 것입니까? 라킨은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 98~99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장부터 7장까지 인용하면서 에베소에서 이단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의 일곱 교회에 보낸 일곱 편지 중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장까지는 교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에베소의 거짓 가르침을 정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느 쪽이든 이 예측은 장로들이 경계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오류를 감지하고 거부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지도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자주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은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내가 삼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완수했으며 지금은 마지막 만남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인내가 궁극적으로 그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32절에서 권면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사역,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성공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에게 약속된 유업, 즉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누리는 영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탐하고 자신과 약한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려는 헌신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시 주장합니다. 33절과 34절.

그는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35절. 바울의 감동적인 고별 연설 후, 그와 장로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을 슬퍼하며 포옹하고 배까지 동행했습니다. 38절.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하는 말을 요약하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하셨고, 바울의 모범과 에베소인들에 대한 그의 명령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은 감독자를 임명하고(행 20:28), 바울은 그들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사역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지혜, 겸손, 탐욕의 없음, 자신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33절과 34절. 그들은 사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20절.

바울은 지도자들이 양 떼를 막지 않으면 양 떼를 황폐화시킬 사나운 이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29절. 그들은 바울이 감독자는 신실한 말씀을 가르친 대로 붙잡아야 한다고 디도에 한 바울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디도서 1:9을 의미합니다. 감독자는 믿음직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교훈으로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의 기쁨이고 교역 장로의 기쁨이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는 미련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건전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과 가르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디모데전서 4:16.

이것은 시급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도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이단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30절.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28절. 그들은 전에는 죄와 사단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속죄의 죽음으로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그들을 사신 분의 소유가 됩니다.

교회 회원들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연설에서 격려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본을 따라 24절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7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 28절.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며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며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사역에 대한 그들의 확신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32절. 마샬은 그리스도인 목사들에게 말씀에 관한 그들의 태도를 상기시킨다. 마샬(Marshall)은 사도행전 335, 337장에서 이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 위에서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14 .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견적을 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그의 백성을 용서하신다.

28절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서 하늘 기업을 주시느니라. 32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된 모든 자 가운데 유업을 주실 수 있느니라.

신약의 신자들은 과거와 미래의 바울을 포함하여 그들의 주님과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 사도행전 20:19, 20:22, 23에서. 스리랑카 복음 전도자 페르난도(Fernando)는 이 구절이 누가의 고난 신학에 기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페르난도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인용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가치 있게 만드는 원인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쉽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감수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볼 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단지 Fernando가 NIV 적용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IV 적용 해설을 영광스럽게 내놓는 독특한 해설 시리즈입니다.

그들은 NIV 적용 주석을 작성하기 위해 성경 책에 대한 학문적 주석을 출판한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그리스어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예를 들어 문단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책에서 그들은 그 메시지를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합니다. NIV 적용 해설. 내 아내는 가르쳤고, 내 아내 Mary Pat은 수년 동안 여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으며, 그 주석 시리즈가 그녀가 하는 일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나의 개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피터슨, 사도행전의 교회, 3부, 바울의 사역의 예, 사도행전 20:18-32입니다.